

지난해 12월15일 저녁 8시반에 김포공항을 이륙한 비행기가 밤새도록 날아 호놀룰루공항에 도착하니, 현지 시간은 같은 날 오전 9시반이었다. 국내선 알로하항공기로 갈아타고 하와이 섬의 힐로로 향했다.

라우에화산의 답사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저녁에 열린 화산 답사에 대한 설명회에서 조지타운대학교의 Pope교수 부부를 만났다. Pope교수는 Polyoxometalate(이하 POM으로 표시)화학의 대부(代父)와 같은 사람으로 이번에도 일본의 Yamase

150개 심포지엄 ... 한국서 60여명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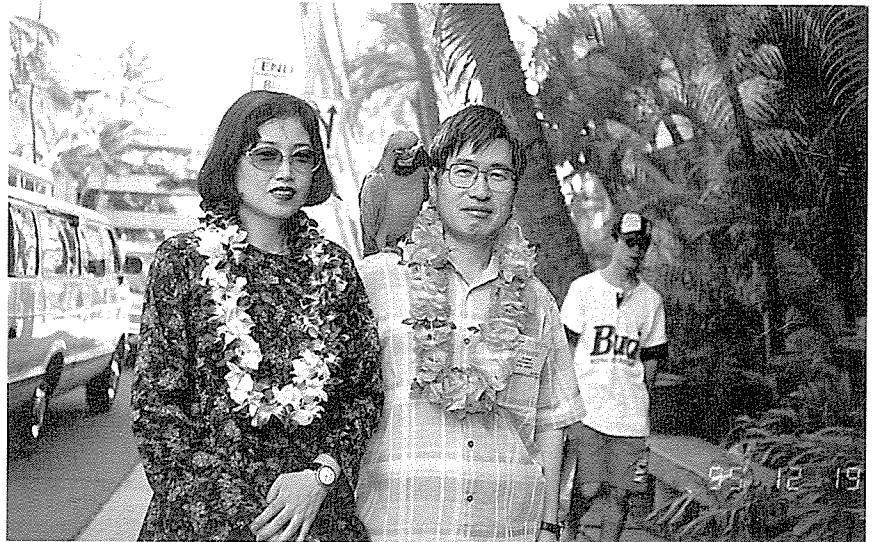
제3차 태평양연안국가 국제화학대회

●일시 ... 95년 12월17일~22일

●장소 ...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

지난 연말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제3차 태평양연안국가 국제화학대회는 각 분야에서 1백50여개의 심포지엄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대회에 우리나라에서는 60여명이 참석해 논문을 발표했는데 2천년째 열리는 제4차 대회에는 더 많은 한국학자들이 참가하게 될 것이다.



▲ 학술회의 참석후 아내와 함께 포즈를 취한 소현수교수

비오는 하와이서 1주일간 열려

비행기 아래로 태평양 바다에 늘어서 있는 하와이의 여러 섬들을 구경하는 중에, 비행기는 어느새 (45분 후에) 힐로공항에 도착하였다. '비의 도시'라는 별명답게 힐로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힐로의 1년 강우량은 3,400mm로 며칠 머무는 동안 거의 매일 많은 비가 내렸다.

먼저 힐로로 간 것은 학회가 주선한 킬

교수와 함께 'Polyoxometalate 화학 : 합성, 구조 및 반응성'이라는 심포지엄을 조직하면서 1989년에 이어 필자에게 논문을 발표하도록 초청하였다.

제3차 태평양연안국가 국제화학대회 (1995 International Chemical Congress of Pacific Basin Societies, PACIFICHEM '95)는 농화학, 분석화학, 생명과학 및 기술, 화학 경제학, 화학 교육, 환경과학 및 기술, 무기화학, 고분

蘇玄秀

(서강대 화학과 교수)

자화학, 유기화학 및 물리화학분야에서 1백50여개의 심포지엄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각 심포지엄의 조직자들은 그 분야에서 현재 가장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을 연사로 초청하였다. 학회 이름에는 태평양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유럽에서 초청되어 온 연사도 많았다. 그러므로 이 심포지엄을 통해 해당 분야의 세계적인 연구 동향을 거의 파악할 수 있었다.

분야별 심포지엄 통해 세계연구동향 파악

16일(토)에 화산에 올라가서 용암이 흘러가며 만들어 놓은 터널이며, 수증기와 황화수소가 계속 분출되는 칼데라 주변이며, 몇년 전에 용암이 바다로 흘러들어간 지역 등을 구경하였다. 저녁에는 Pope교수 부부와 함께 일식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였다. 요사이는 미국 사람들도 생선회를 잘 들고, 젓가락질도 잘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다.

17일(일)에는 소나기가 짹짹 내리는 바닷가 풍경이 가장 인상에 남는 한적한 마을 힐로를 떠나 호놀룰루로 갔다. POM화학에 대한 심포지엄은 18일(월)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열렸다. 예모리대학 Hill교수의 '스스로 조립하는 POM', 독일에서 온 Muller교수의 '7백개 이상의 원자로 구성된 거대 POM', 콜로라도 주립대학 Finke교수의 'Nanocluster 촉매 중의 POM', 일리노이대학 Klemperer교수의 '귀금속 전극표면 위의 헤테로다중 이온층의 형성' 등의 강연이 특히 흥미있었다.

일본인 학자 Ishii, Izumi, Matsu-moto 등은 POM을 촉매로 이용한 연구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콜로라도 주립대학의 Crans교수는 POM의 생물학

적 활성화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필자는 '상자기성 POM에 배워진 리간드들에 대한 NMR 연구'를 발표하였다. 논문을 발표하기로 되어 있던 중국의 Liu교수 및 Wang교수가 참석하지 못한 것은 유감이었다.

구두 발표가 끝나고, 포스터 세션이 시작되기 전에 열린 리셉션 시간에는 심포지엄 참가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도 함께 참가하여 화가에애한 시간을 보냈다. Hill교수는 그의 부인뿐만 아니라 장모와 장모의 친구까지 모시고 왔는데, 이들은 2년 전에 독일에서 열렸던 이 분야의 심포지엄(정확히는 심포지엄 후의 리셉션)에도 참가하여 다른 연구자들과도 아는 사이였다.

필자는 이 심포지엄 외에 'Molecular-Based Magnetic Materials'에 관한 심포지엄에도 참석하였는데, 이 모임에서는 필자가 자주 참고하는 책 'Molecular Magnetism'의 저자인 Kahn박사(프랑스 보르도 고체화학연구소), 'Electron Paramagnetic Resonance of Exchange-Coupled Systems'의 저자인 Gatteschi교수(이탈리아 피렌체대학) 등이 열심히 발표하고 진지하게 질문하는 광경을 볼 수 있었다. 그동안 분자로 된 강자기성 물질을 합성하려는 노력에서 많은 이론적, 실험적 진전이 있었으나, 아직도 대부분 물질의 전이온도가 실온보다 훨씬 낮은 것이 문제였다.

7천여명중 日인이 4천명 참가

PACIFICHEM '95의 등록자는 모두 7천3백여명. 그중 일본인이 4천명, 미국인이 3천명에 가까우며, 나머지 국가에서 온 사람들을 모두 합쳐야 1천명이 안된 것으로 추산된다. 우리나라에서는

60여명이 참가하여, 비슷한 숫자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숫자는 89년도에 국내 화학자가 발표한 10여편에 비하면 5배나 되는 것이다.

1989년에 열렸던 제2차 PACIFICHEM에는 국내의로부터 30여명의 한국인이 참가하였으며, 이들중 10여명이 한국식당에 모여 저녁식사를 나누었다. 그 자리에서 위스콘신대학의 유혁교수님이 "20년 전만해도 한국의 화학자들이 이런 국제대회에서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을 꿈에라도 생각할 수 있었겠느냐?" 하면서 감개무량해 하던 모습이 생각난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내 참가자만 60여명이나 되니 한 자리에 모일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아직도 일본이나 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참가자 수는 너무나 적은 편이다. 제4차 PACIFICHEM이 열리는 2000년 경에는 다시 참가자 수가 5배로 증가하여, 3백여명이 참가할 수 있으면 하는 희망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각 심포지엄에 초청받는 연사의 수가 늘어나야 한다. 초청을 받기 위해서는 좋은 논문을 발표해야 하겠지만, 심포지엄을 조직하는 사람들과의 교분도 중요하리라고 본다. 그러므로 당장 초청을 받지 않더라도 포스터로 논문을 발표하면서 관련 분야의 연구자들과 만나는 기회를 만들면 좋을 것이다.

이번 학회참석을 위해 여비를 지원해 준 과학재단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과학재단과 학술진흥재단이 여비 지원을 계속 늘어 더욱 많은 사람이 국제학회에 참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일본에서는 많은 대학원생들까지 와서 포스터 발표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도 그런 날이 올 것을 기대해 본다. (57)